

“불자들, 복지실천력 부족”

월1회이상 봉사활동 16%뿐

■경상지역 교양대생 1284명 ‘실행의식’ 설문

불교교양대학이나 신학교에서 불교를 배우고 있는 불자들의 41.8%가 사회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리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설 한문복지원 박주천 원장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불교관련 교양대학생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실행의식 설문조사의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15.9%만이 복지시설에서 월 1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봉사할 생각이 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게 봉사활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라고 응답해 종단이나 교양대학 차원에서 기회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교교리 교육과 관련하여 불교교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 어렵다’와 ‘예불문이나 의식때 한문이나 범어

가 많아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51.7%로 가장 많았다. 또 초심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없거나 통일된 교재가 없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박주천 원장은 “앞으로 한글세대를 위한 역경 사업이 단순히 음역이 아닌 의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재 통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2.2%가 노인대학, 건강관리, 스포츠댄스 등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람의 역할을 기대했으며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92.1%가 화장을 원하고 71.5%가 화장후 사할 남골당에 안치되는 것에 찬성했다. 전반적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불교식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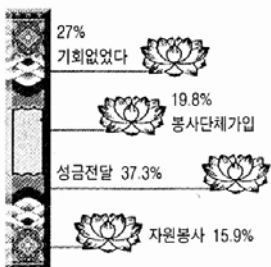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될 경우 66.2%가 사찰이 쉼터기도, 법회, 기초교리 강좌, 참선수행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7.4%의 응답자가 가족들이 다함께 1박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희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주 5일제 근무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찰의 발빠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부합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7.2%가 어린이 놀이 공간에 사찰에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밖에도 청소년 법회나 어린이 주일 학교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전체 49.5%가 한달에 1권 이상의 불교서적을 읽고 있으며 25%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가 어려운 이유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안양 한마음선원 ‘도량탑’ 제막

경기도 안양 한마음 선원(원장 대행스님) 본원에서 6일 오후 3시 ‘도량탑’ 제막식이 열렸다.

한마음 선원 큰법당 뒤뜰에 세워진 높이 9.6m의 도량탑은 8각 기단위에 백색의 공 모양 9개를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세워 탑으로 삼았다. 기단부의 상층이 큰법당의 지붕을 장엄하고 있는 우주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물이 아닌 도리’를 담았다. 제막식에는 선원장 대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 지원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해 “우주의 고통받는 온갖 생명들이 더 이상 고통에서 헤매지 않고 공생·공성·공공·공체·공식으로 일체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라”고 발원했다. 권형진 기자

석불·석탑도 중국산 ‘러시’

국내 석재산업 타격 문화적 혼란도 우려

농산물과 경공업 제품에 이어 석불, 석탑, 석등, 망주석, 등 석물(石物)까지 중국에서 무차별 수입돼 국내 석재산업 타격은 물론 문화적 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주지역 10여개 석재공장을 비롯 포함 울산 등 동해안 50여개 석재공장 중 10여개 대형 석재공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재의 70% 가량이 중국산 수입품이라는 것. 나머지 소규모 공장들도 묘지석은 대형공장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석공의 하루 노임이 8만~10만원인데 비해 중국에서 조각할 경우 인건비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석재 가격도 저렴해 업체들이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오석 상석의 경우 국내 들은 40만원인데 비해 중국들

은 18만원이며 6차짜리는 국내들이 80만~100만원, 중국들이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도면을 제시한 후 그에 맞춰 만들도록 한 주문 생산품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인 석공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감각에 따라 조각한 것들이어서 문화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종단에 등록이 안된 일부 사찰에서는 값싼 중국산 석물로 경내를 장식하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

경주시 S석재와 김 모 대표는 “대형 석재공장은 대부분 중국 수입품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대 장충식 박물관장(불교미술학)은 “불상은 그 시대 민중의 애환을 대변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조각하는 것이므로 한국 사찰에는 우리 불상을 설치해야 한다”며 “우리 정서와 다른 조각품들이 사찰에서까지 사용되는 것은 문화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재경 기자

1월20일은 성도절

사찰마다 정진법회

성도절(1월 20일)을 전후해 법회와 공연이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열린다. 특히 올해 성도절은 임오년 첫 달에 있어, 많은 불자들이 사찰이나 공연장을 찾아 불심을 다지고 부처님 처럼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서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조계사(02-732-2115)는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월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탑골공원, 참선, 108배 정진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조계사는 밤 12시를 기해 유미족 공연시간을 갖고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김천 직지사(054-436-6174)는 13일부터 20일까지 용맹정진기간을 정하고 성도절을 맞는다. 순천 송광사(061-755-0107) 역시 14일부터 매일 법회를 열고 연등을 밝혀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20일 새벽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봉은사(02-511-6070)도 18일부터 3일간 대웅전과 법당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월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이런 법회는 석가모니를 정근, 참선, 108참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제주 관음사(064-722-2829), 서울 도선사(02-993-3161), 해남 대둔사(061-534-5502), 예산 수덕사(041-337-6565), 보은 법주사(043-543-3615), 대구 동화사(053-985-4404) 등 주요 사찰과 불교회관 등에서도 용맹정진을 통해 신심을 증장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정진법회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광주 불교사우연협회(062-376-3223)는 20일 오후 4시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 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주불교사우연은 매년 대규모 법회로만 성도절을 맞아 왔는데, 올해에는 청소년 포교의 날로 하자는 광주지역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간소한 성도절 법회와 음악 콘서트를 마련했다.

수원포교당(031-255-2692)은 19일 오후 2시 42수 관세음보살 봉안식과 오후 7시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로 성도절 전야제를 마련하고, 20일 오전 10시부터 성도절 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1년 동안 신행활동과 포교·봉사에 솔선한 신도의 신행 단체를 대상으로 포교대상 시상식도 갖는다.

김원수·김철우 기자

범어사 경부고속철 대책위 구성

범어사주지 성외가 경부고속철 철도건설 관련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계,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범어사는 8일 가진 총무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경부고속철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금정구민 등과 연계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범어사는 “1300년 역사의 호국사찰인 범어사

경내 계곡에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헤치면서 고속철이 관통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선 변경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국장 도관스님은 “공사구간과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진동이나 소음 등이 문화재나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존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노선 변경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기차역 게시판 ‘경쟁’

‘자비의 말씀’ 설치승인 이후 기독교 선교판 만들기 나서

장항·중앙·호남·동해·태백·남해선 2백여 철도 역사에서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포교 및 선교 경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철도청 산하 철도역사에서 ‘부처님 말씀’ 게시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불교계(이성자 성운)에 따르면, 역사의 벽면마다 열차시간표, 운

임표, 상업광고 등이 부착되어, 게시판을 붙일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불교계와 함께 철도 역사 내 선교 게시판 설치 승인을 얻는 기독교계 ‘지하철 선교회’가 1월을 기점으로 선교 게시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게시판 설치를

놓고 불교계와 기독교계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포교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게시판의 ‘부처님 말씀’ 포스터를 교체하는 등의 관리를 책임지는 ‘포교위원’과 설치비용을 후원하는 ‘협찬 사찰’을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게시

판만이라도 우선 설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 부족으로 여의지 않다. 불교계는 이종성 사무처장은 “현재 진각종의 후원금 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외상으로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설치의 속도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고, ‘지하철 선교회’와 경쟁이 시작되면 포교 게시판을 온전히 설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다”고 말하며 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36-5583 오종욱 기자

보원·종고스님 등 4명 고창경찰서 경승위촉

고창경찰서(서장 양승규)는 8일 회의실에서 선운사 보원스님, 종고스님을 비롯해 상원사 도안스님, 용화사 법운스님 등 4명의 신임 경승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고창경찰서 경승에 위촉된 스님들은 위촉장을 전달받고 앞으로 불교에 관심있는 경찰서의 직원 및 전, 의정들을 대상으로 정진교양과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시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애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